

제국, 혹은 세계문학과 탈아(脫亞)하는 K-문학

—— 일본으로부터의 물음

김경채 (Keio University)
kc.kim@keio.jp

2024년 1월 26일 제1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한국학이란 何오>

K-문학은
한국문학인가?

K-문학은 한국문학인가?

- 한국문학은 어떻게 K-문학이 되는가?
- 한국문학이 K-문학이 되는 과정에서 더해지거나 소거되는 것은 무엇인가?
- 세계/아시아/K-문학의 겹침과 어긋남으로부터 어떤 사상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문학과 K-문학의 사이

“그러나 최근 젊은 독자-대중에게 ‘K-문학’이라는 신조어는 원래의 어의에서 이탈해 새로운 내포를 지니게 됐다. 그것은 주류 문학장의 식민주의적 열등감과 시장패권주의적 열망을 동시에 반영한 ‘조잡한 조어’로 간주되며, 의심할 바 없는 비웃음의 대상이다. 이는 ‘K문학 프로젝트’가 상정하는 한국문학의 수출용 가치들과 그 존재방식 전반이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예컨대 ‘K문학’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주류 한국문학의 오랜 습성과 체질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도식적 재현 및 여성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폭력을 필수적으로 경유하는 한국문학 전반의 여성혐오,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재현의 윤리’를 고려하지 않는 약자 혐오 및 소수자 혐오, 장르문학에 대한 철저한 위계화를 통해 관철되는 순문학주의, 자체 동력을 상실한 채 환금화 가능성에만 매달리는 기생적 존재 방식, 세계시장 진출 및 세계 문학상에 집착하는 제국주의적 욕망 및 후진국 콤플렉스, 가족·모성애와 같은 전통적 질서의 수호에만 골몰하는 폐쇄적 보수성, ‘국뽕’ 기획과 결합한 무차별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교조주의적 “꼰대질”, 오락성의 현저한 결여… 이제 ‘K문학’은 시장패권주의와 결합된 한국문학의 부정적 성격 전반에 대한 종족화를 경유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조롱의 기표로 활용되고 있다.”

오혜진 (2016), 「퇴행의 시대와 ’K문학/비평’의 종말」, 『문화과학』(85), pp. 91-92

한국문학과 K-문학의 사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처 모델이 받아온 긍정 평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K-’ 시대의 발흥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동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도 했지요. 이것은 단순히 두 현상이 시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둘의 겹침 자체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팬데믹 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국은 세계적 재난에 임했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국제적 종아가 되었습니다. 발병 초기부터 현재까지 질병과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블룸버그 통신이 산출한 코로나 회복력 지수에서 한국이 1위에 올라 있는 것도 그런 평가의 한 지표라 하겠습니다. 국제적 거버넌스 비교의 플랫폼이었던 팬데믹 사태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국제적 호감 상승의 플랫폼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 말하자면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K-’ 대열에 합류한 셈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정치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이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혼란도 유혈도 없이 대통령을 과면시켰던 2016-7년의 촛불집회가 곧 그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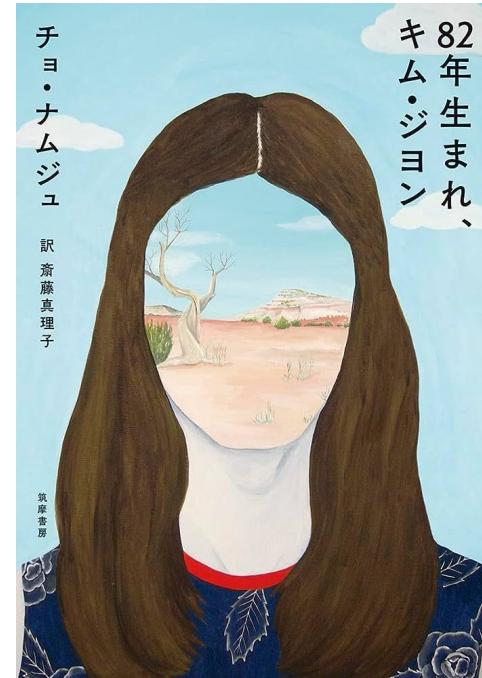
서영채 (2022), 「2022년 여름, ‘K-’ 시대와 한국문학」, 『실천문학』(145), p.266

한국문학과 K-문학의 사이

- K-문학=근대문학에서 유래하는 “앨리티즘적 계몽주의, 가부장주의, 시장패권주의, 순문학주의”(오혜진, 2016, p. 91)를 상징하는 부정적 기호
- 팬데믹은 K-문학의 가치가 부정적 기호로서의 K-문학을 압도하는 계기로 작용 + 문학의 장르/제재/문제의식의 다양화를 통한 K-문학의 자기 갱신
- K-文学=일본문학에 부재하거나 빈약한 소수자성, 페미니즘, 사회비판적인 오락성을 갖춘, 일본 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의 입지를 제고하고 스스로를 쇄신하기 위한 참조항

세계문학으로서의 K-문학

- “세계문학 속의 이웃—함께 기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문학’” (齊藤真理子・鴻巣友季子, 『文藝』2019年秋号)
- “서구의 미의식이 최량의 판단의 준거로 작동하지 않고 전세계의 문명적 성취를 존중하면서 공생공존의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는 ‘새로운 세계문학’에의 서사적 실천을 수행하는 K-픽션” (고명철 (2022), 「새로운 세계문학으로서 ‘K-픽션’을 전략화하기」, 『오늘의 문예비평』(125), pp. 57-83)



K-문학에 부재한 것

“이 책은 출판시장×내셔널리즘(혹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요구와 연동되었던 과거 일본 내 조선문학 봄이라든지, 한일연대 지식인·문인이 중심이 된 1970, 80년대 한국문학에의 관심 구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82년생 김지영』 표지의 얼굴없는 두상 이미지와 비슷하게, 얼굴 없는 독자의 동력과 연동된 것이기도 하며, 이때의 독자는 자본주의 대중의 소비자 정체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다.”

김미정 (2020),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과 ‘얼굴없음’의 정동-『82년생 김지영』 일본어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51), pp.307-308

K-문학에 부재한 것

고노스 “한국에서 문학의 기원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서양에서 문학은 운문으로 된 설화시나 희곡에서 시작되죠. (.....) 일본의 근대화는 19세기 후반이지만, 비교적 산문 문학의 발달이 빨라 헤이안 시대에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세계문학이 탄생했습니다. (.....) 한자-한문의 수입 번역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 문학을 발전시킨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사이토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학도 일본을 경유하게 돼요. (.....) 근대 소설은 이광수의 『무정』(1917)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고,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문자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다는 의미에서 근대 소설 1호였던 거죠. 하지만 이후 이광수는 대일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근대 문학이 고난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담 사이토 마리코×고노스 유키코〉, 『文藝』, 2019年秋号

K-문학에 부재한 것

고노스 “‘김지영’과 같은 작품을 접하면서 번역문학은 역시 일본 문학의 일부라는 것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번역문학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우리 번역가들이 조금 내성적인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문학인 거죠. 사이토 마리코 씨 등 한국어 번역가들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런 이야기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모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 문학을 보완하는 존재로서요.”

사이토 “일본에도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지향성이나 욕구가 있고, 앞으로 쓰여질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파고들 때 한국 문학과의 비교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모두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던 불편함 같은 것이 다시 새로운 형태로 일본어로 작품화되었으면 좋겠고, 그 때 한국 소설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하는 것이 생산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대담 사이토 마리코×고노스 유키코〉, 『文藝』, 2019年秋号

K-문학에 부재한 것

“과학이나 환상, 현실풍자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광의의 사이언스 픽션, 혹은 스페큘레이티브(Speculative) 픽션이라 불리는 소설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418)

“한국 SF에 여성 작가가 많은 것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국제적 견지에서 봤을 때 특수한 것일까? 실은 그렇지 않다.”(422)

하시모토 테루유키(橋本輝幸), 〈우리들의 차이와 공명—세계SF를 부감하며〉, 『文藝』, 2021年春号

K-문학에 부재한 것

김초엽 “문단에서 다양한 소설이 다뤄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SF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녀울 “소위 ‘문단 문학’을 취미로 읽어왔고, 문학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장르문학으로 데뷔했어요. 그래서 문단과 장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문단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좌담 김초엽×심녀울×천선란×황모과〉, 『文藝』, 2021年秋号

K-문학에 부재한 것

- 한국 내에서 주류 한국문학의 바깥에 위치해 있었던 페미니즘 문학, 장르문학(SF)이 K-문학을 대표하게 되고, 소수의 작가, 번역가, 출판 자본, 라이터writer, 서평가에 의해 담론이 주도되면서 K-문학의 역사적(문학사적) 맥락이 후경화
- 장르문학의 창작 주체는 소위 주류 한국문학(문단)과의 연관을 끊어내고 장르적 보편성을 통해 한국 밖의 K-문학론과 접속
- 한국문학의 K-문학화는 주류 집단 내의 소박한 공감대, 장르적 보편성에 기대어 이루어지며, 차이/역사성을 배제한 ‘불편하지 않은’ K-문학이 보편적 ‘세계문학’과 매개없이 접속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
→K-문학/세계문학의 정치적 동력이 무력화

“주장이 강하지 않고, 결론을 단정 짓지 않는 열린 결말”(日本經濟新聞, 2023.9.16)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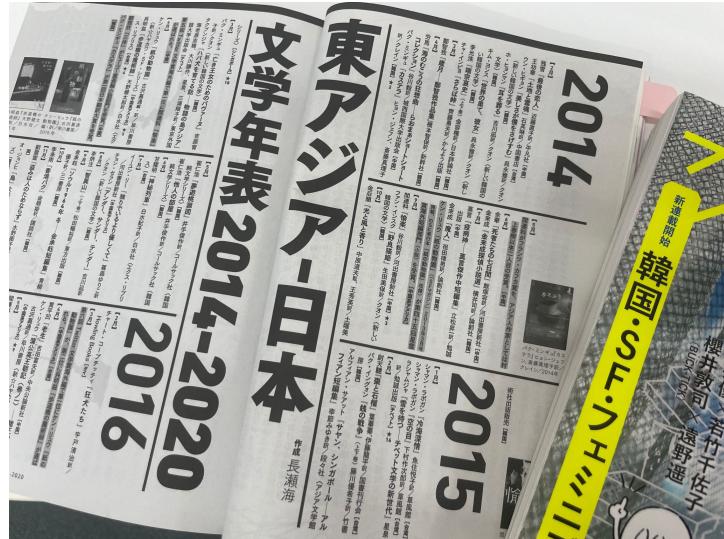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 〈동아시아-일본 문학 연표 2014-2020〉, 『文藝』, 2020年春号

번역문학=일본문학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일본어 번역판 간행년 기준으로 작성된 연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티벳,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의 작가/작품이 게재

2014년=“류츠신의 『삼체』의 영어판이 켄
리우의 번역에 의해 간행된 해”, “동아시아
소설이 유럽의 소설을 능가하여 독자의
주목을 끈, 일본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해”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 〈아시아SF 북 가이드〉, 『SFマガジン』, 2022年6月号

중국, 대만,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문학 작품들: 박민규(『카스테라』, 『핑퐁』, 『더블』), 천선란(『천 개의 파랑』), 이랑(『오리 이름 정하기』), 정세랑(『목소리를 드릴 게요』, 『보건교사 안은영』), 김동식(『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정소연(『옆 집의 영희 씨』), 김초엽(『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일본 문학은 그동안 외국 문학의 영향 하에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이 일본에서 많이 읽혀서 자극이 되고 있고, 중국 문학이라면 옌(閻) 씨나 위화(余華) 씨 등, 모옌(莫言) 씨 이후의 작가들도 이전보다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스케일이 다른 작품이 일본 문단에도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옌렌커 × 히라노 게이치로〉, 『文藝』, 2020年春号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지금은 세계화가 진행되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복잡하게 관여하는 시대입니다. 좁은 공동체 안의 사건을 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삶을 그릴 때 어디까지를 그 삶에 관여하는 것으로 쓸 것인가. 그에 따라 소설을 쓰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체나 작품의 구조 자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베 코보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무지함을 주제로 삼은 작가입니다. (……) 이는 그가 만주에서 자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 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만주에는 제한적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한 발짝 밖의 세계는 중국이었죠. 그런데 현대인이 느끼는 세상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가 너무 많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가 너무 많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보니 소설의 층위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문체와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해갔습니다.”(132)

〈대담 옌렌커×히라노 게이치로〉, 『文藝』, 2020年春号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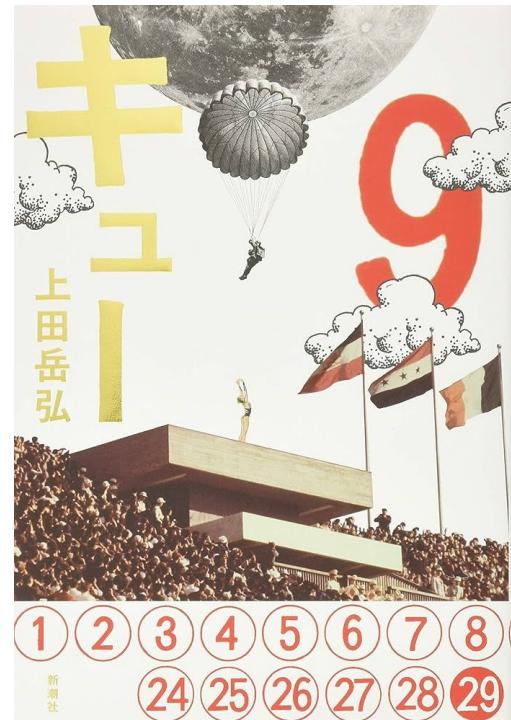
“무라타 사야카 씨의 『편의점 인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그主人公이 해외에서 일본의 정신 나간 짙은 여성으로 읽히는 것은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작가들의 작품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하지만 표현에 제약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작가들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을 뿐이지 소설보다 현실이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쓰면 마술적 리얼리즘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리얼리즘입니다.” (134)

〈대담 옌렌커 × 히라노 게이치로〉, 『文藝』, 2020年春号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 우에다 다카히로(上田岳弘), 『큐(キュー)』(2019)
오족협화의 만주국↔일본의 국체
- 우에다 다카히로(上田岳弘), 「첫 번째 사랑(最初の恋)」(2020)
주인공의 첫사랑=만주에서 온 전학생
- 사토 키와무(佐藤究), 「촘판틀리(ツォンパントリ)」(2020)
1924년 11월 28일에 고베에서 열린 쑨원(孫文)의
대아시아주의 강연 다시쓰기
- 오가와 사토시(小川哲), 「지도와 주먹(地図と拳)」(2022)
만주국 이후의 일본의 역사경험(전쟁 책임)의 소환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 K-문학은 ‘세계문학’의 매개로서의 ‘아시아 문학’의 일부
- ‘아시아 문학’은 세계문학의 보편성 내부에 근대문학/근대성/근대경험을 끌어들이고 재현의 한계, 번역 불가능성, 불화의 지점들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이면서, 동시에 일본문학을 간신히 하는 도구(타자)
→ ‘제국 문학에 기여하는 식민지 문학’(조선학)의 반복?
- 제국문학/세계문학, 대동아문학/아시아문학, 조선문학/K-문학의 반복과 차이

세계문학/아시아문학/K-문학

- K-문학(론)을 통한 ‘세계문학’에의 비판적 개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K-문학(론)은 일본발 ‘아시아 문학’에 어떻게 응답, 혹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K-문학(론)에 조선/한국문학의 역사성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